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재난위기상황 및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분석

권용선¹ · 최은영² · 박선정³ · 박상용⁴

¹경동대학교, 조교수 · ²경동대학교, 부교수

³여주대학교, 조교수 · ⁴동아보건대학교, 조교수

Content Analysis on the Disaster Crisis and Countermeasures Recognized by Nursing Students

Yong Sun, Kwon¹ · Eun Young, Choi² · Sun Jung, Park³ · Sang Young, Park⁴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⁴*The Clinical Laboratory, Donga College Of Health,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3권 제3호 2019년 9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3, September 2019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재난위기상황 및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분석

권용선¹ · 최은영² · 박선정³ · 박상용⁴

¹경동대학교, 조교수 · ²경동대학교, 부교수

³여주대학교, 조교수 · ⁴동아보건대학교, 조교수

Content Analysis on the Disaster Crisis and Countermeasures Recognized by Nursing Students

Yong Sun, Kwon¹ · Eun Young, Choi² · Sun Jung, Park³ · Sang Young, Park⁴

¹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³Department of Nursing,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Professor

⁴The Clinical Laboratory, Donga College Of Health,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saster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o build a disaster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ir awarenes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how to provide effective education to enhance coping skills in disaster and crisis situations. **Methods** :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figure out and make a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250 selected nursing students from four different colleges that were respectively located in Seoul, Gyeonggi Province, Gangwon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after interviewing them. **Results** : As for the definition of disaster, three categories and 18 statements were selected. Four categories and 10 statements were selected as to the cause of disaster, and four categories and 19 statements were selected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disaster. Seven categories and 21 statements were selected regarding the way of disaster prevention, and Ten categories and 26 statements were selected as to what they wanted to learn to ensure safety in disaster and crisis situations. **Conclusion** :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in order to offer sustained education associated with disaster management for nursing stud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to conduct education on disaster nursing and disaster preparation. In addition, it seems advisable to run a disaster-related curriculum to raise disaster awareness, to make better on-site preparations and to enhance coping skills.

Key words : Awareness, content analysis, disaster, nursing studen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재해를 말하며,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교통사고, 항공과 해상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로 한정하고 있다[1]. 현대사회의 기후, 환경변화, 고도의 기술, 산업화 등으로 인해,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강도 및 빈도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지난 세월호사건과 메르스사건의 발생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3]. 자연적, 인위적, 사회적 재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의 통합적 조직체계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상황에서 개개인이 재난안전관리에 대처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4].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서의 지진발생, 산업체의 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5]. 대규모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에 대응하는 전문 인력의 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복합재난 발생 시 국민 대부분의 공동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며 재난대비 및 대응 교육훈련이 개별적 단체적으로 진행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6]. 재난이 발생하면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 전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수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하고 생존자뿐 아니라 구호담당 직원이나 자원 봉사자 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악화된 생활환경으로 인한 이차적인 건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7].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간호

인력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난간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8].

2013년 개정한 간호윤리강령[9]에는 간호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재해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을 만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은 간호 대학생에게 중요하다. Kim[10]은 재난간호에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재난간호란 재난으로 인해 야기된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간호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11]. 재난대비와 예방은 재난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12],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은 간호학생에게 필수적이다. 또한 발생가능성이 높은 응급재난을 파악하고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 및 대비책을 평가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3]. Lee[13]는 재난의 규모가 강력하더라도 사전예방, 대비와 대응이 충분하다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적인 반복적, 지속적인 재난에 대한 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재난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대응하게 되어 그에 따른 재난간호에 대한 수행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위기상황에 대한 간호 대학생들의 위기상황 대응방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재난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간호에 관한 연구로는 보건소 방문 간호사, 종합병원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14],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5]. 최근 들어 재난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이 간호교육에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간호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Woo[16]가 연구한 간호대학생의 재난 경험, 인식 및 준비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나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학생들이 재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재난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재난위기상황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재난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재난위기상황에서 인식과 대처방안을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강원도, 전라도에 위치한 4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면담 후 질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수락하여 서명을 한 총 250명의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뢰도 95%, 오차한계 $\pm 2.32\%$ 로 할 때 필요한 표본의 수에 해당되므로[17]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였으며,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의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근거로 하여 재난위기상황에서 인식과 대처방안에 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포기 가능성, 발생 가능한 이익과 불이익 등을 연구에 대한 내용을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이 충분히 설명한 후 자

발적 동의서 작성하였으며 질문지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질문지는 연구종료 후 모두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이었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5개의 개방형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재난위기상황이란 무엇인가?’, ‘재난위기상황은 왜 일어나는가?’, ‘재난 위기상황이 왜 중요한가?’, ‘재난위기상황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재난위기상황 시 안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교육은 무엇인가?’이었다.

4. 자료 분석

간호학생의 재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에 대한 자가보고 기록은 Krippendorff[18]의 내용분석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단계는 연구자가 내용분석기법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경험 있는 2명의 연구자와 함께 기술한 문장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재난위기상황에서 인식과 대처방안에 관련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기술한 문장이나 글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의미있는 진술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네 번째 단계는 종합된 내용을 개념화하여 정리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는 개념화된 내용을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내용분석에서의 타당도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기준은 학계 동료들로부터 중요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들은 내용 분석방법으로 연구수행 경험과 질적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단계에서 연구자들 간의 의견일치는 97% 이상이 확인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가족 단위, 종교, 재난경험, 재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재난에 대해 자료를 얻는 방법, 재난교육을 받고 싶은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이는 20세~25세 154명(62%), 26세~30세 96명(38%)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63명(65%), 남성 87명(35%)이며, 가족단위는 핵가족 168명(67%), 확대가족 70명(28%), 기타가 12명(5%)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유무는 있다 128명(52%), 없다 122명(48%)으로 나타났다. 재난 경험의 유무의 경우 재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35명(94%),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5명(6%)으로 나타났다. 재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5명(98%)으로 나타났고, ‘들어본 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5명(2%)으로 나타났다. 재난에 대해 자료를 얻는 방법은 학교에서 얻는 방법이 96명(40%)으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로 얻

는 방법이 84명(35%), 가족에 의해 얻는 방법이 70명(28%)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교육을 받고 싶은가에서는 받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242명(96.8%)으로 나타났고,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8명(3.2%)으로 나타났다.

2.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재난 위기상황 및 대처 방법

대학생이 인식하는 위기상황 및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에 관한 면담자료는 재난의 정의, 재난의 원인, 재난의 중요성, 재난의 예방법, 재난위기상황 시 안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으로 5가지 영역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총 94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과 28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진술문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의 정의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50명으로 재난의 정의에 대한 면담자료는 「자연적 재난」, 「생명의 위협」, 「사회

Table 1. The Definition of Disaster

(N=250)

	Significant Statements	N	Including One Decimal Place Only(%)
Natural disaster	Natural disaster On-going situation that the damage caused by a disaster is increasing. Earthquake, flood, natural disaster. Typhoon Fire, earthquake. Tsunami	132	52.8
Life threat	The situation is rapidly changing. A situation where several people are injured or where there are damages. Threat to life A situation to threaten one's life. Something that takes a great physical, mental and social toll. A nuclear power plant explodes.	94	37.6
Social disaster	An unexpected crisis situation War Terror Social calamity People are wounded or buildings collapse.	24	9.6

적 재난」으로 분류되어 3개의 범주와 총 18개의 진술문으로 도출되었다. 「자연적 재난」의 개념은 「자연재해», 「재난으로 피해가 커지는 진행형 상황», 「지진·홍수·자연재난», 「태풍», 「화재·지진», 「해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52.8%(13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명의 위협」의 개념은 「주변상황이 급격하게 변함», 「여러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가 있는 상황», 「생명의 위협», 「목숨의 위협이 되는 상황»,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큰 손상 손실을 일으키는 것»,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생각하는 경우가 37.6%(94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의 개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 「전쟁», 「테러», 「사회재난», 「사람이나 건물들이 다치고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9.6%(24개)로 나타났다(Table 1).

2) 재난의 원인

본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재난의 원인은 다음 4개의 범주 총 10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된 범주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부주의», 「모름」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재난의 원인에 대한 대답 중 「자연재해」의 대한 대답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천재지변», 「가뭄·홍수·화재·태풍·지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56.8%(1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재난」의 대답은 「환경오염·지구 온난화·무차별적 개발·전쟁», 「인위적인 재난·인공재해」로 생각하는 경우가 34%(85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주의」의 대답은

「적절한 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부주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 「예측되지 못한 채 일어난다」로 생각하는 경우가 6%(15명)로 나타났다(Table 2).

3) 재난의 중요성

본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재난의 중요성은 다음 4개의 범주 총 19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된 범주는 「생명의 중요함», 「피해의 규모가 큼», 「시간에 따라 피해가 많음», 「환경변화로 발생함」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재난의 중요성에 대한 대답 중 「생명의 중요함」에 대한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 「생명이 달린 일이라서»,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로 생각하는 경우가 46%(115명)로 가장 많았다. 「피해의 규모가 큼」의 대답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줄여야 해서», 「예방, 대처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오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하여 국가 및 개인의 자산 피해가 발생하므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31.6%(79명)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라 피해가 많음」의 대답은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갑작스런 재난이 일어나면 빠른 시일 내에 극복(복구)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8%(45명)로 나타났으며, 「환경변화로 발생함」에서는 「기후의 변화로 나타남», 「환경의 변화로 발생

Table 2. The Cause of Disaster

(N=250)

	Significant Statements	N	%
Natural disaster	Because of natural disaster. Natural calamity Drought, flood, fire, typhoon, earthquake.	142	56.8
Social disaster	Environmental pollution, global warming, indiscreet development, war. Artificial disaster, man-made calamity.	85	34
Carelessness	When no proper preparations are made. Carelessness A disaster occurs when proper precautions aren't taken. A disaster occurs without being predicted.	15	6
Having no idea	Have no idea.	8	3.2

Table 3. The Importance of Disaster

(N=250)

	Significant Statements	N	Including One Decimal Place Only(%)
The importance of life	Because a lot of people could lose their lives, Because people's lives and death depend on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 Because lots of people could be injured or die, Because of a huge loss of lives, Because people's lives are at stake, Because it threatens people's lives.	115	46
Large-scale Damage	Because of a great damage, Because prompt coping is needed to reduce possible damages, Because there will be a great danger if precautions aren't taken, Because a disaster leads to a loss of national and individual people's assets.	79	31.6
Increasing damages with the lapse of time	Because it's important to cope with i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prompt overcoming(restoration) is difficult to do if a sudden disaster takes place.	45	18
Occurrence by environmental changes	Because of the change of climate, Because of environmental changes, Because of resource depletion, Foot-and-mouth disease might occur, Avian influenza occurs, People die from ebola virus, H1N1 flu occurs.	11	4.4

함', '자원 고갈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음', '조류독감이 발생함',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람이 죽음', '신종플루가 발생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4.4% (11명)로 나타났다(Table 3).

4) 재난의 예방법

본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재난의 예방법은 다음 7개의 범주 총 21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된 범주는 「재난 예방», 「생태파괴를 멈춤», 「재난 대비 건물을 지음», 「재난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재난 본부 설치», 「모름」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재난의 예방법에 대한 대답 중 「재난 예방」의 대답은 '예방법', '대비', '항상 조심하고 무엇이든 주의해야한다'로 생각하는 경우가 40.8%(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생태파괴를 멈춤」에 대한 대답은 '자연개발 금지', '생태파괴를 멈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9.6% (74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재난 대비 건물을 지음」

에 대한 대답은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해야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지진 대비비용으로 짓게 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4%(35명)로 나타났다. 「재난 교육」의 대답은 '안전교육', '재난 위기상황에 대해 교육', '적절한 대처 방법과 예방의 방법 등을 교육', '대처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함', '재난 대응방법, 대처법 숙지', '적절한 예방과 대비', '대처 방법', '대비하고 주의 있게 행동하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7.6%(19명)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교육」에 대한 대답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간접적 경험으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실무교육', '상황에 따라 준비'로 생각하는 경우가 4.4%(11명)로 나타났으며, 「재난본부 설치」에 대한 대답은 '재난본부 설치', '재난본부를 만들어 제대로 된 예방, 대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한다'로 생각하는 경우가 3.2%(8명)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Way of Disaster Prevention

(N= 250)

	Significant Statements	N	Including One Decimal Place Only(%)
Disaster prevention	How to prevent. Preparations. One should always be careful about everything.	102	40.8
Stopping destroying the ecosystem	Prohibit the development of nature. Stop destroying the ecosystem.	74	29.6
Constructing disaster-proof buildings	Construction work should be done properly from the beginning. Buildings should be required by the nation to be earthquake-proof when they are constructed.	35	14
Disaster education	Safety education. Educate disaster and crisis situations. Educate how to properly cope with and prevent disaster situations. Be able to have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cope with it. Be well-acquainted with the ways of responding to and coping with disasters. Proper prevention and precautions. The way of coping. Make preparations and behave carefully.	19	7.6
Simulation education	Gain secondhand experience by simulation to calmly evacuate. On-the-job training. Make prepara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11	4.4
Setting up a disaster headquarters	Set up a disaster headquarters. A disaster headquarters should be set up to prevent and cope with disasters in the right way, and people should be educated.	8	3.2
Having no idea	Have no idea.	1	0.4

5) 재난위기상황 시 안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

본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재난위기 상황 시 안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10개의 범주 총 26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으며 분석된 범주는 「대처법」, 「대피교육」, 「상황법」, 「응급 처치법」, 「실생활 교육」, 「생존법」, 「신고」, 「상황파악」, 「구조요청」, 「모름」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재난위기 상황 시 안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한 대답 중 「대처법」에 대한 대답은 「위기상황 시 대처방법」, 「지진발생 시 대처법」, 「재난위기 대처법·대응방법」, 「혹시라도 재난으로 인해 다쳤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37.6%(94명)로 가장 많았다. 「대피교육」에 대한 대답은 「지진교육」, 「지진 시 대피법, 대피소 위치, 재난 대비를 위한 정책」, 「재난 시 연락하는 방법

· 대피소」, 「화재상황 교육」, 「대피장소·대처방법·상황파악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3.6%(84명)로 나타났다. 「상황법」에 대한 대답은 「시뮬레이션 연습」, 「상황에 맞는 대피훈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16.8%(42명)였으며, 「응급 처치법」에 대한 대답은 「응급 처치법」, 「응급처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7.2%(18명)였다. 「실생활 교육」에 대한 대답은 「재난 시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실생활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로 생각하는 경우가 2.8%(7명)이었으며 「생존법」에 대한 대답은 「안 다치고 안전하게 생존하는 방법」, 「안 다치기 위한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2%(5명)로 었다. 「신고」에 대한 대답은 「신고를 하고 대피 한다」, 「도망가 신고한다」로

Table 5. Please Write Down What You Want to Learn to Ensure Safety in Disaster and Crisis Situations (N= 250)

	Significant Statements	N	Including One Decimal Place Only(%)
The way of coping	How to cope with disaster and crisis situations. How to cope with earthquake. How to cope with and respond to disaster and crisis situations. How to cope with a disaster if one is wounded by any chance due to it.	94	37.6
Evacuation education	Earthquake education. The location of shelters for earthquake survivors, and disaster prevention policy. How to contact others in the event of a disaster. Fire education. How to find out a shelter available, how to cope with a disaster, and how to grasp the situation.	84	33.6
Situation-specific method	Simulation drill. Evacuation drill depending on the situation.	42	16.8
First-aid method	How to give first aid. First aid.	18	7.2
Education for real life	What to do in daily life in the event of a disaster. I want to know the best possible way. I want to learn a method that is workable in real life.	7	2.8
The way for survival	How to survive safely without being injured. How to stay safe without being wounded. How to keep living.	5	2
Report	Report first and then evacuate. Report after fleeing.	25	10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Understand the situation through news, cell phone or radio.	8	3.2
Request for rescue	Call for help. Protect one's own body and follow instructions after calling for help. Call for help to live without being wounded.	5	2
Having no idea	Have no idea.	1	0.4

생각하는 경우가 10%(25명)로 나타났고, 「상황파악」에 대한 대답은 ‘뉴스나 핸드폰 라디오 등으로 상황을 파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2%(8명)로 나타났으며, 「구조요청」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구조요청’, ‘구조요청 후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시에 잘 따른다’, ‘안다치고 살기위해 구조요청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5명)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재난위기상황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재난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재난위기상황의 인식이 어떠한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함으로써 재난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재난상황에 대해 예방하기 위한 교육자료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92%가 재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16]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은 인터넷, 매스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재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인이 직접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재난 사건들을 접하고 있으므로 안전체험관 등의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재난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재난을 경험한 경우는 없지만 간호대학생으로써 재난발생시 재난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난의 정의에 대해서는 간호 대학생들이 ‘자연적 재난’, ‘생명의 위협’,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중 자연재해에서 지진, 홍수, 태풍, 화재, 해일에 대해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15]으로 한 연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연재해에 대해 재난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 발생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은 ‘사회재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무차별적 개발, 전쟁, 인위적인 재난, 인공재해라고 인식하였고, 이는 Park[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재난 시 재난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재난발생 대비를 위한 대비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의 원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재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이 ‘생명의 중요함’, ‘피해의 규모가 큼’으로 인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재난발생 형태가 과거에는 호우, 태풍과 대설 등의 자연재난에 그쳤으나, 최근 재난의 발생 위험성과 규모가 증가하면서 세월호사건, 감염병 메르스의 확산과 리조트 붕괴사고, 2016년 및

2017년에 발생한 경주 및 포항지진 등의 각종 사회적 재난과 인적인 측면의 대형재난을 경험하였다[20]. 앞으로도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21]. 특히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명손실은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 기반의 재난 대비 관리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은 ‘생태파괴를 멈춤’, ‘재난 대비 건물을 지음’, ‘재난 교육’, ‘재난본부 설치’ 등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Yoon 등[22]의 연구에서는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고려하며 경제, 사회, 기관, 지리적 환경, 개인이 능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Kwon 등[23]의 연구에서도 재난을 예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제적인 재난대비 태세가 미비하다고 하여 재해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난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재난위기사황을 대비하여 받고 싶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재난 대처법’, ‘대피 교육’, ‘재난 상황법’, ‘응급 처치법’, ‘실생활 교육’, ‘생존법’에 대해 본 연구 대상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존법[15]과 실생활과 관련되어진 교육 및 방안[24]은 응급간호와 관련되어 중요시 되는 것을 알 수 있어[2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재난관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영역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궁극적인 재난관리는 개인 당사자에게도 중요시 된다[26].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인식을 높이고 현장 대비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재난 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으로 재난관리와 연계된 지속적인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재난인식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재난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재난의 정의, 원인, 중요성, 예방법,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 구조화한 질문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서술한 것을 내용분석 하였다. 각 각의 내용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각종 사회적 재난을 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재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여 재난인식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재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반복연구나 재난에 대한 지식과 기술 등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등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Public health act [Internet]. Sejong : Author; 2015 [cited 2015 April 12].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main.html>.
2. Ko GB, Lee SL, Chae J. A study on disaster management officer's perception about the disaster response exercise-focused on general officers and firemen.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010;24(6): 34-44.
3. Ahn EK, Kim SK.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11:257-267.
4. Ahn EG, Keum KL, Choi SY. A study on the disaster preparedness of nurses in some korean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011;29(1):94-109.
5. Champman K, Arbon P. Are nurses ready? Disaster preparedness in the acute setting. *Australian Emergency Nursing Journal*. 2008;11(3):135-144.
6. Bearnson CS, Wiker KM. Human patient simulators: a new face in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at brigham young universit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005;44(9):421-425.
7. Ahn EG, Kim SK.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core competencie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11(6):257-267.
8. Park YJ, Lee EJ. A study on ego-resilience, disaster experience and core competencies among emergency room nurses. 2015;21(1):67-79.
9. Korean Nurses Association [Internet], Korean Nurses' Code of Ethics[cited 2013], Available From: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Retrieved April 8, 2015)
10. Kim HJ. A study on disaster preparedness, core competencies and educational needs on disaster nurs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11):7447-7455.
11. Lee YR, Lee MH, Park SK. Development of the disaster nursing competency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2013; 9(4):511-520.
12. Alim S, Kawabata M, Nakazawa M. Evaluation of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and disaster drill for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15; 35(1):25-31.
DOI : <http://dx.doi.org/10.1016/j.nedt.2014.04.016>
13. Lee HS. A study on the emergency relief design with consideration for weak person of disaster [dissertation]. Seoul: Konkuk University; 2014. p.1-139.

14. Lee SK. The knowledge and awareness of disaster preparedness among nurses in emergency department. [master's thesis]. Ulsan:Ulsan National University; 2013. p.1-53.
15. Kang KH, Uhm DC, Nam ES. A study on disaster experience and preparednes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3):424-435.
16. Woo JH, Yoo JY, Park JY. Experience awareness and preparedness of disaster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Review of Crisis& Emergency Management. 2015;11:19-35.
17. Cochran WG. Sampling techniques. 3rd ed. John Wiley & Sons; 1997. p.1-50.
18. Krippendorff K.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Beverly Hills: Sage; 2004. p.1-90.
19. Park SY.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natural disasters: focused o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p.1-70.
20. Lee YR, Han SJ, Cho CM. Disaster experience, perception and perceived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6;24(4); 237-242. DOI : 10.17547/kjsr.2016.24.4.237
21. Uhm DC, Park YI, Oh HJ. Disaster preparation of visiting in public health cent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 22(2):240-249. DOI : 10.5977/jkasne.2016.22.2.240
22. Yoon DK, Kang JE, Brody SD. A measurement of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in Korea. Journal of Environ Planning and Management. 2016;59:436-460.
23. Kwon YT, Yoon MO, Choi H.C.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of business activities about disaster preparedness betwee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2013;9(4):383-391.
24. Ho MC, Shaw D, Lin S, Chiu YC. How do disaster characteristics influence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008;28(3):635-643.
25. Melnikov S, Itzhaki M, Kagan I. Israel nurse's intention to report for work in an emergency or disaster.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14;5:134-142.
26. Choi NH. Disaster, crisis, disaster nursing-2011 korean disaster nursing symposium. The Journal of Korean Disaster Nursing. 2011;6(1):238-245.

